자비사상 실천 20년, 천태 교화 밑거름

천태종복지재단 설립 20주년, 걸어온 길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999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 국가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나눔과 봉사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천태종복지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천태종복지재단은 천태종의 3대 지표인 애국불교 · 생활불교 · 대중불교를 통해 지역밀착형 사회복지 사업을 개발하고, 생명과 환경이 존중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고자 설립됐다.

1999년 10월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뒤 춘천동부노인복지관과 새싹어린이집을 위탁하면서 본격적인 불교복지 확산에 나선 천태종복지재단은 현재 전국적으로 종합복지관 · 노인복지관 14곳, 노인요양원 6곳, 어린이집 11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800여 명이 복지재단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복지재단 설립 당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새 세기의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종단이 적극적인 중생구제 활동에 나서서 갖가지 사회적 질환을 치유해야 한다"는 교시를 내리면서 복지기금 5억 원을 출연했다. 아울러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재단 이사장 운덕 스님은 "외형적인 성장보다 삶의 질을 향상케 하는 내면적 발전을 위하겠다"며 불교복지사업 비전을 밝혔다. 이어 서울 우면산 관문사에 재단사무국을 두고, 부산 삼광사와 대구 대성사에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했다.

춘천시니어클럽,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단양노인복지관 등 주로 강원 · 충북지역에서 복지사업을 전개해온 천태종복지재단이 전국단위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설립 10년이 지난 2009년 서울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수탁이다. 이는 복지재단의 첫 종합복지관 수탁 사례로, 이후 서울서 송파노인전문요양원과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분당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수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천태종복지재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12월 4일 기념식을 개최한다. 사진은 최근 태풍 미탁의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를 위해 재단 임직원들이 활동하는 모습.

IMF 외환위기 국난극복 위해
지역밀착형 사회복지사업 전개
전국 31개 기관 운영하며 성장
12월 4일 단양서 20주년 기념

2017년 9월에는 복지재단 부산지부를 개소, 삼광사에 사무소를 두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 1월 서구노인복지관을 수탁한 데 이어 부산진구 가야동에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까지 운영하게 됐다. 올해에는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하고, '통일복지국가의 로드맵과 종교복지재단의 과제'라는 주제로 천태복지 학술대회를 여는 등 1차적인 복지서비스를 넘어 종단과 국가발전을 위한 복지전략까지 구상하고 있다.

천태종복지재단 20년 연혁

- 1999 복지재단 인가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위탁
- 2002 춘천시니어클럽 지정
- 2004 강원도노인보호기관 위탁
- 2007 단양노인 · 장애인복지관 위탁
- 2009 서울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저소득 조손가정 생계비 지원
- 2011 서울 우면종합복지관 위탁
- 2012 분당 청솔종합복지관 위탁
- 2016 압구정노인복지센터 위탁
  제1회 천태복지 학술대회
- 2017 복지재단 부산지부 개소
- 2019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현재 전국 31개 기관 운영

설립 20주년이 된 천태종 복지재단은 △노인복지사업 △아동 · 청소년 지원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사회복지조사 연구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불교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형 재단으로 성장했다.

이 같은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천태종복지재단은 오는 12월 4일 오전 11시 30분 단양 대명리조트 2층 도담삼봉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20년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표창한다. 또한 10년 근속 종사자와 유공자, 우수 직원에게도 시상이 이뤄진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20주년 각 시설별 기념영상도 상영된다.

천태종복지재단 측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재단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대 · 내외적 업적과 위상을 재조명하면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재단이 앞으로 더욱 합심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용주사, 연쇄살인 피해자 넋 달랜다

11월 23일 관음전서 합동위령재

효찰 대본산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법)가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들의 고혼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위령재를 봉행한다.

용주사는 11월 23일 오전 9시 30분 경내 관음전에서 '화성연쇄살인 피해자를 위한 합동위령재'를 봉행한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6년 동안 경기도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4개 읍면에서 초등학생부터 70대 할머니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인한 사건이다.

관내 기관 등 500여 명 참여
"고혼들 극락왕생 기원 · 추모"

사건이 일어난 지 33년이 지난 올해 9월 당시의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유력용의자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유력용의자의 자백 등이 이어지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고 유력용의자를 중심으로 진범을 잡기 위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용주사가 봉행하는 합동위령재는 경기도와 화성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합동위령재는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부에는 인로왕보살 등 제불보살을 법단에 모시는 시련, 피해자 고혼들을 영단에 모시고 천도의식을 고하는 대령, 고혼을 깨끗이 씻고 정화하는 관욕의식 등이 진행된다.

제2부에서는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화성시장,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유관기관장의 추모사와 조사,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의 천도법문 등이 이뤄진다. 또한 피해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한 용주사 본말사 주지 스님들의 천도염불과 추모의식도 진행된다.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은 "DNA감식을 통하여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고 또한 그 사건에 대한 용의자의 자백이 진행되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번 위령재를 통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 고혼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추모하며,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한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자전거로 배가 된 네팔청소년 '행복'

날마다좋은날, 네팔 오지 학교
행복자전거 210대 전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과 한국자비공덕회(회장 지상)는 11월 3~5일 네팔 동부오지 자파(Jhapa)지역에 위치한 거우라다허 지방자치단체(Gauradaha Municipality) 소속 8개 학교에 행복자전거 210대와 컴퓨터 65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네팔지방정부 1도(총 7개도) 내무 · 법무장관(Minister of Internal Affairs & Law) 히크머트 버하두르 카르키(Hikmat Bahadur Kariki), 로히트 샤흐(Rohit Shah) 거우라다허 지방단체장과 이 지역 학생, 학부형 등 많은 현지 주민들이 참석했다.

카르키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50여 년 전 저희가 식량을 지원했던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제 저희가 부처님의 인연과 케이피 시토울라 씨의 가교역할로 지원을 받고 있다. 소중한 후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며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 스님은 "이번 행복자전거는 먼 거리를 걸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하여 마련했지만 모두에게 전달을 하지 못해 미안하고 안타깝다. 그러나 멀리서 걸어서 다니는 친구들을 먼저 배려한 것이니 자전거를 받지 못한 학생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힘이 닿는 대로 장학생 수를 늘려가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네팔 자파지역 8개 학교 학생들이 행복 자전거를 타고 밝게 웃고 있다.

이번 행복자전거 나눔 행사는 집에서 5km 이상을 걸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선발해 각 학교별로 골고루 배분됐다. 아이들은 후원자들의 이름이 적힌 네임 택이 달린 새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 가슴이 벅찬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특히 다리뼈가 부러져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장애인 프러비카 머거르(11세, 잔타초등학교 5학년)의 어머니 버비따 머거르(39세)는 "딸을 자전거에 태우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날마다좋은날은 2010년부터 네팔, 몽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의료봉사와 더불어 열악한 지역의 유치원 · 학교들을 중심으로 각종 봉사 및 후원 활동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6월, 본격적으로 엄홍길휴먼재단과 네팔 치왕굼바 기숙사 건립 협약을 체결하면서 네팔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함께가자 녹색불교'
불교환경연대 후원의 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11월 27일 오후 6시 소테츠호텔즈 더 스프라지르 서울 명동에서 '함께하자, 녹색불교'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의 생명존중사상을 실천하며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지구 생명을 구하는 '녹색불교' 활동기금을 모금하는 자리다.

'계절이 담긴 밥상'이라는 컨셉으로 저녁식사가 진행되며 본행사서는 히말라야 훌로깅 운동(flowging, 걸어다니며 플라스틱을 줍는 운동)을 모범적으로 진행한 네팔의 부메학교(Bhume)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부메학교 학생 75명은 히말라야 도처에 있는 플라스틱 병을 수거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부메학교 한국인 미술교사이자 명예교장으로 위촉된 김규현 씨의 추천으로 이번 후원의 밤에서 학생들에 대한 상이 수여된다. 행사 마무리는 환경 약속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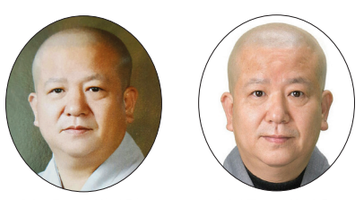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2017년 후원행사에서 1억여 원을 모금해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고 현재 운현궁 옆에 교육장과 사무실을 마련하여 숲해설가 양성과 환경강사 양성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2019 삼광사 청소년 가요제
in BUSAN
청소년
끼와 열정
그리고 꿈을 나누다
일 정 | 본선 2019년 11월 23일 오후 4시
장 소 | 삼광사 특설무대
문 의 | 사무국 02-706-3493
주 최 |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주 관 | BBS불교방송
프로그램 경연대회 / 초청공연 / 심사발표 및 시상식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43번길 77
TEL. 051-808-7111~5
www.samkwangsa.or.kr